



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(□□□□-□□)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 □□
□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
□□□□ 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

한국의 문화재는 그 자체로 역사와 전통을 담고 있는 무형의 보물이다. 예술, 철학, 종교, 생활 등 다양한 분야에서 창조된 문화재들은 국가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핵심적인 요소로 자리잡고 있다. 특히 고대 유적과 고분은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. 그 외에도 전통 예술과 철학, 종교, 생활 문화 등은 국가의 정체性和 문화 다양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자료로 평가된다.

□□□□□-□□ □□ □□□□□-□ 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

□□□□: □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

□□□□□,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
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
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
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 □□□□□